

# 부산도시철도 급행 생긴다... 2차 변경안 승인

지역 이모저모

오륙도 연장선 등 10개 노선 확정  
철도 운영 효율성 강화 위해 수립  
도시철도 접근 시간 1.81분 단축



부산시청.

국토교통부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을 18일 최종 승인을 했다.

이번 변경계획은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17.6.) 후 그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타당성을 재분석한 현실적인 계획으로,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철도 서비스 제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광역철도와의 네트워크 기능 강화 등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을 구현하기 위해 수립됐다.

국토부의 변경계획 승인에 따라, 10개 노선(92.75km 신규 4개, 기존 6개)이 도시철도망 구축 대상노선으로 확정됐다. 4개 노선이 신규로 추가 반영됐고, 기존 7개 노선(83.0Km)은 일부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병합해 6개 노선으로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신규노선은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오륙도 트램실증노선(1.9Km)에서 오륙도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오륙도 연장선'(3.25Km)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호선(장산역)을 연장하는 '오시리아선'(4.13Km) ▲도시철도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한 도시철도 '1·2호선 급행화' 노선 등 4개 노선이 추가됐다.

기존노선에서는 ▲도시철도(1호

선)와 동해선의 네트워크 효과 증대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정선과 정관선이 '노포~정관선'으로 병합됐고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C-Bay~Park선'은 용두산공원·광복동·부평동 구간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연장됐다. 그리고 ▲'송도선'은 C-Bay~Park선과 연계 및 사하경찰서 경유를 위해 노선이 변경되는 등 도시철도 간 연결성 강화와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노선 일부 구간이 조정·변경됐다. 이

외 기존노선인 하단녹산선, 기장선, 강서선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됐다.

도시철도망 구축 대상노선 선정기준(경제성 0.7 이상, 종합평가 0.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변경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초읍선, 영도선, 우암~감만선, 동부산선은 후보노선으로 선정돼 장기 우선 검토노선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계획에 반영된 대상노선이 모두 건설되는 2036년에는 도시철도 수단분담률이 기존 11.04%에서 14.08%로 3.04%p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분 이내 도시철도역으로 접근 가능한 행정동이 128곳에서 152곳으로 늘어 평균 접근시간이 기존 9.06분에서 7.25분으로 1.81분 단축되고, 도시철도 역세권 인구도 기존 82.8%에서 88.0%로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 부산관광공사 사장에 이정실 교수

부산시는 18일 부산관광공사 사장에 이정실 동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부산지방공단스포윈 이사장에 조용래 전 남구 부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임기는 각각 2022년 1월 18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3년간이다.

신임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다양한 관광 관련 협회 및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관광업계와 자주 소통하면서 관광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지닌 관광 분야 전문가이다.

또한, 신임 조용래 부산지방공단스포윈 이사장은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 국장, 남구 부구청장 등을 거치는 등 많은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행정 전문가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 화순군, 사랑의 헌혈증서 기부

화순군(군수 구충근)이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 헌혈증서 100매를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백혈병 등 환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증서 기부에 동참했다.

화순군은 올해도 부족한 응급 혈액 확보를 위해 오는 25일 화순군 의회동 4층 대회의실과 행복민원과 앞에서 '동절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 계획이다.

/화순(전남)=김태수 기자

## 부산시, 미세먼지 차단에 86억 투입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5곳에 조성



부산시 강서구 미세먼지 차단숲.

부산시가 생활권 내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86억 원을 투입해 도심 속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나선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주요 대로변 및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도심 내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성되는 숲이다. 미세먼지 흡착 및 흡수 기능이 높은 수목으로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와 도시열섬 현상 등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연간 35.7g(에스프레소 한 잔)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경유차 1대의 연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심 생활권 내 조성되는 도시숲의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평균 40.9%까지 저감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부산시는 올해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주요 철도역 ▲사하구 신평동 강변대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완충녹지 ▲사상구 사상역 공영주차장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일원 등 5곳에 8.6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80억 원을 투입해 감천항, 사상공단, 녹산공단 등 주요 산업단지 16곳에 18ha 규모의 차단숲을 조성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할 미세먼지 차단숲을 지속해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 광주시, 월세지원·그린리모델링

# '1인 가구' 건강한 삶 지원

5개 분야 총 22개 사업  
1인 가구, 32.4% 차지

광주광역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인가구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 1인가구는 지난 2020년말 기준 32.4%(19만 3948가구)로, 2000년 14.7%(60,207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1인가구 비율인 31.7%에 비해서도 높다.

광주시는 2019년 10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에는 1인가구 실태를 조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인가구 지원 대상별 정책 수요를 반영해 경제활동 지원(5개 사업), 주거지원 및 안전 확보(8개 사업), 사회적 관계망 강화

(6개 사업), 건강증진 지원(2개 사업), 시민 인식 개선(1개 사업) 등 5개 분야에서 총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 대상별 주요 사업을 보면 1인가구의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53억원), '1인가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195억원)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범죄예방 취약가구 지원'(8000만원), '1인가구 여성안전 지킴'(1200만원) 1인가구의 고립 방지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동아리 활동지원, 행복밥상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치구 중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동구와 협업체 선정된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은 동구민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 영암군 긴급차량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

긴급상황시 골든타임 확보

영암군은 경찰·소방차 등 긴급차량 주차가 위급상황 시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개정된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교체 및 발급된 전용 번호판

(998~999)을 인식하여 무인 차단기 등을 자동으로 진입해 대형화재나 강력범죄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영암군은 1월 중으로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인식하는 자동 진·출입 시스템이 미적용된 무인차단기 관리자에 대해 개선 독려를 할 예정이며,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 하동군 농식품 7500만달러 수출 발판 마련

수출·유통 촉진간담회 개최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 6508만달러, 국내 유통 620억원을 달성한 하동군이 올해 농식품 수출 7500만달러, 유통 700억원을 목표로 잡고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동군은 지난 17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윤상기 군수 주재로 2022년 농식품 수출·유통 촉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은수 NH농협 군지부장, 조철수 하동축협 전무, 여

근호 하동농협조합장, 박한균 지리산청학농협조합장, 강규훈 하동군수출협회장 등 유관 기관장과 수출 농가·단체 및 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유통 실적 및 주요 성과 보고, 2022년 농식품 수출·유통 촉진 계획 및 지원 정책 설명, 농가·업체의 동향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논의된 촉진 방안과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구례군,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남 구례군은 24일부터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 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례사랑상품권으로 현장 배부한다. 구례군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28일 열린 5일시장 설 대목장 이전에 집중적으로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구례사랑상품권은 구례의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명절을 앞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례(전남)=심인주 기자 6007sim@



##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보성군의 대표축제인 '제23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축제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매년 전국의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참여해온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될 위기에서 무관중 경연대회로 전환하여 개최되었다.

2021년 제23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10월 1일~3일 동안 열렸다.

/보성(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